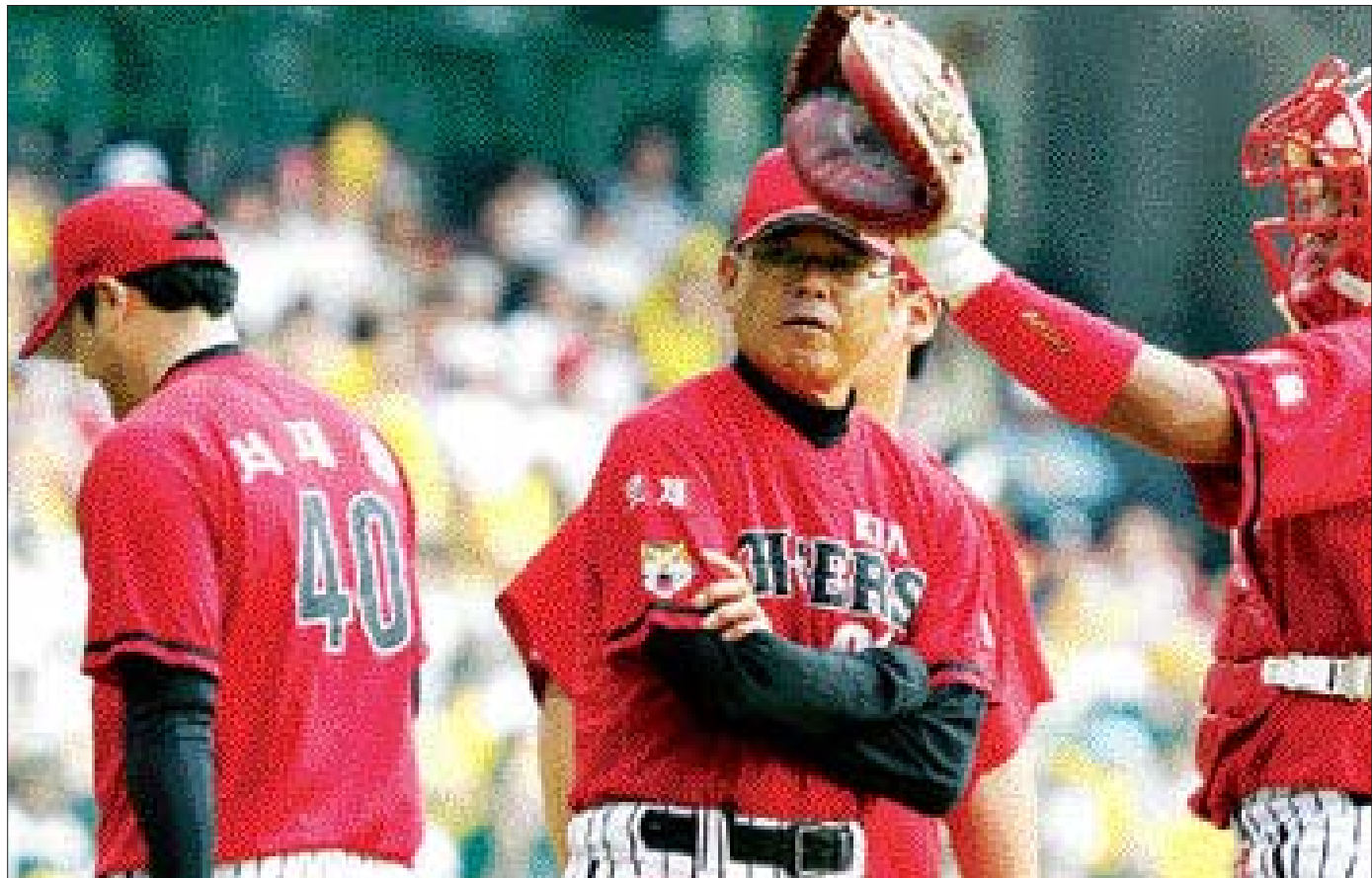


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6-7700



13일 오후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 대 KIA 경기. 2회말 두산 공격 1사 2,3루때 KIA 선발 서재용이 4실점 후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혁, 0.5게임차! KIA 1위 수성 비상

주말 두산전 2연패... 2위 SK 턱 밑 추격에 KS 가는길 안갯속



마주마주 프로야구

대결에서 투·타의 동반 부진으로 1-10으로 대패했다.

전날 '두산킬러' 로페즈가 6이닝 9실점(4자책)으로 무너지며 9-10으로 패했던 KIA는 14일에도 선발 서재용이 1과3분의1이닝 동안 8개의 안타를 얻어맞으며 6실점으로 흔들리며 초반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

방망이도 침묵했다. 2회와 6회 1사 1루, 무사 1루에서 병살타가 나오는 등 두산 선발 니코스키의 벽에 막힌 KIA는 두산의 총총한 수비에 이중 공세를 당하며 좀처럼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3회 선두타자 차일목의 2루타에 이은 땅볼 2개로 뽑아낸 1점이 이날 KIA의 유일한 득점이었다.

KIA의 1위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 KIA 타이거즈가 1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투·타의 동반 부진으로 1-10으로 대패했다.

이날 패배로 1위를 향한 KIA의 매직넘버는 7에서 멈췄고, 경기가 없던 2위 SK와의 승차는 0.5게임차까지 좁혀지게 됐다.

9월을 시작할 때만 해도 2위 SK와는 5.5게임차였다. 순위를 뒤집기에 멀어보이는 게임차에 8월 한 달 20승을 싹쓸이했던 만큼 KIA가 정규리그 1위 자리에 무혈입성하는 듯했다.

하지만 4승7패, 잘나가던 KIA는 9월들어 승보다 더 많은 패를 기록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 열린 SK와의 주중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며 1위 싸움이 급박해졌다.

반면 지난 8월 KIA와 5번의 대결에서 모두 패를 기록하면서 추종했던 SK는 무서운 기세로 12연승을 달리며 올 시즌 KIA가 작성했던 연승 기록에 1승을 더했다. 남은 일정도 SK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KIA가 이번주 광주-대전-서울을 돌며 6경기를 소화한 것에 비해 SK는 3경기만 치른 채 휴식중이다. 일정에 여유가 있어 세 경

기에서 총력전을 벌였던 SK는 다음주에도 이를 경기, 이를 휴식 그리고 다시 이를 경기 일정이 잡혀있다.

SK와 대결을 벌이게 되는 상대도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10승1무6패와 13승4패로 앞서있는 약체 LG와 한화다. KIA보다는 한결 느긋한 SK는 연승행진 기록까지 욕심 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갈 길 바뀐 KIA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윤석민의 부재속에 밀렸던 선발진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힘든 9월을 나고 있는 KIA는 타격까지 삐걱거리고 있다. 거기에 원정 4연전을 치렀던 KIA는 다음주에도 히어로즈와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등 감행중이다. 주중에 만나는 히어로즈와는 올시즌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며 7승8패로 열세를 기록했던 만큼 턱 밑까지 추격해온 SK가 더욱 부담스럽다.

잠실에서의 싸움 2연패로 KIA의 정규리그 우승길이 안갯속에 가려지게 됐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랜만에 낮경기 생소하네... 호랑이들 '잠과의 전쟁'

'곰과의 전쟁'만큼 힘들었던 잠과의 전쟁'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최종전이 열린 14일 KIA 타이거즈 선수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전날 9회까지 팽팽한 1점차 승부를 펼치는 등 피말리는 1위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오랜만에 낮경기를 치르느라 평소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원래 예정된 경기 시간은 오후 5시이지만 뜨거운 야구 인기에 공중파 방송에서 중계에 나서면서 경기시작 시간이 1시30분으로 앞당겨졌다. 선수단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고, 덕분에 14일 오전 선수들은 잠과의 전쟁을 벌여야 했다.

선수들의 일반적인 기상시간은 대략 정오경이 된다. 경기를 마치고 간단히 휴식

휴대전화 등 각종 알람 동원
평소보다 2~3시간 일찍 기상
생체 리듬 깨져 피로감 호소

기를 한 뒤 인터넷과 TV 시청을 하며 휴식을 취하다보면 새벽 2시가 훌쩍 넘기 마련. 취침시간이 늦다보니 당연히 기상 시간도 늦다.

하지만 14일 1시30분경기를 위해 선수들은 알람을 총동원해 평소보다 2~3시간 일찍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했다. 독방을 쓰는 노장 이종범은 확실한 기상을 위해 '후배알람'까지 동원했다. 이종범의 엄명엔 양현종이 기상 도우미로 나선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배상문 한국오픈 2연패

시즌 2승... KPGA 투어선수 첫 상금 5억원 돌파

배상문(23·키움증권·사진)이 '토종의 힘'을 보여주며 내셔널 타이틀대회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배상문은 13일 천안 우정힐스 골프장(파71·7천185야드)에서 열린 제52회 한국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두르며 합계 10언더파 274타로 챔피언즈에서 동반플레이를 펼친 김대섭(28·삼화저축은행),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를 따돌렸다.

작년에 이어 다시 정상에 오르며 상금 3억원을 받은 배상문은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2승을 올려 상금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고 2년 연속 상금왕을 향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배상문은 또 시즌 상금 5억605만원을 쌓아 K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상금 5억원을 돌파한 선수가 됐다. 아마추어 시절인 1998년과 2001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김대섭은 18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내며 마지막까지 승부를 뜨겁게 달렸지만 9언더파 275타로 1타차 준우승에 머물렀다.

차세대 골프황제로 거론되는 매길로이는 김경태(23·신한은행)와 함께 공동 3위(6언더파 278타)를 차지했다.

질은 안개로 예정보다 50분 늦게 4라운드 시작했지만 2만여명의 갤러리가 몰려 배상문의 우승 모습을 지켜 봤다. 배상문과 김대섭, 매길로이는 전반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대결을 벌였지만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배상문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공동 선두 김대섭과 매길로이에 1타 뒤진 3위로 출발한 배상문은 11번홀(파4)에서 김대섭과 매길로이가 그린을 놓쳐 1타를 잃는 사이 긴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잡아넣으며 1타차 단독 선두로 치고 나왔다.

12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을 1m 옆에 붙여 다시 1타를 줄인 배상문은 까다로운 13번홀(파3)에서 7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3개홀 연속 버디로 3타차 선두로 나선 배상문은 17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을 그린 뒤쪽 러프에 보내 위기를 맞았지만 어프로치샷을 1.2m에 붙인 뒤 파로 막아냈다. 김대섭은 14번홀(파4) 버디로 2타차로 따라붙었지만 16번홀(파3) 버디 퍼트가 홀을 살짝 빗나갔고 17번홀에서 1.5m 파 퍼트를 놓쳐 역전 기회를 날려 버렸다. /연합뉴스



임지나 LG전자 오픈 초대 챔프

KLPGA 투어 2년만에 정상

임지나(22·코오롱-잭니클라우스·사진)가 한국어자프로골프(KLPGA) 투어 LG전자 여자오픈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임지나는 13일 경기도 광주 그린힐골프장(파72·6천54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뽑아내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로 정상에 우뚝 섰다. 2위에 6타나 앞선 여유 있는 우승이었다.

2007년 MBC투어 로드랜드 왕중왕전에 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션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맛본 임지나는 2년 만에 2승째를 따냈다. 2라운드까지 단독 1위를 달린 임지나는 같은 조에서 플레이한 안선주(22·하이마트)가 1,3번 홀(이상 파4)에서 버디를 잡아 잠시 공동 선두 자리를 내줬지만 5번, 8번 등 파3 홀에서 한 타씩 줄이며 다시 간격을 벌리기 시작했다. 반대로 안선주는 6,7번 홀(이상 파4) 연속 보기로 타수를

잃었다. 12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은 임지나는 2위권과 4타 차이를 달아났고 17번 홀(파4)에서 임지나는 버디를 잡은 반면 안선주, 김하늘(21·코오롱) 등 공동 2위는 1타를 잃어 6타 차가 꽤 우승자가 사실상 결정됐다. 2006년부터 KLPGA 투어에서 뒀던 임지나는 해마다 상금 순위 20위 안에 들었을 정도로 꾸준한 성적을 보였다.

올해도 5월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에서 3위에 오르는 등 상금 순위 17위(6천37만원)였던 임지나는 우승 상금 8천만원에 보태 6위로 뛰어올랐다. 안선주와 김하늘이 약속이라도 한 듯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버디 퍼트가 홀 바로 앞에서 멈춰 서며 타수를 줄이지 못해 나란히 3언더파 213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2라운드까지 선두에 1타 뒤진 2위였던 서희정(23·하이마트)은 이날 4타를 잃어 이븐파 216타, 홍란(23·민심웨어) 등과 함께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김송희 LPGA 첫승 기회 잡았다

P&G뷰티 2R 2타차 선두

공동 3위 최나연 역전 노력

김송희(21·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생애 첫 승을 눈앞에 뒀다.

김송희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퍼너클골프장(파71·6천274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P&G뷰티 NW아칸소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여 중간합계 9언더파 133타가 됐다. 단독 2위인 안젤라 스탠퍼드(미국)에 2타 앞선 김송희는 2007년 LPGA 투어에 뛰어들어 첫 우승 가능성을 불쭉했다.

1번 홀(파4)에서 시작한 김송희는 3번 홀(파3)에서 보기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후반에만 버디 3개를 몰아치며 타수를 줄였다. 2008년 코로나 챔피언십과 삼성월드 챔피언십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이 개인 최고 성적인 김송희는 "이렇게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가는 것이 처음이라 기쁘다.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내일 경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나연(22·SK텔레콤)도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를 쳐 중간합계 6언더파 136타, 유선영(23·휴온스), 청아니(대만)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최나연과 유선영도 아직 LPGA 투어 우승이 없어 첫 승을 올릴 기회를 잡았다. 최나연은 "캐디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긴장을 풀었다. 내일도 오늘처럼 좋은 기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8월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허미정(20·코오롱)과 최혜정(25), 제인 박(22), 김나리(24)도 5언더파 137타로 나란히 공동 6위에 올라 역전 우승을 노리게 됐다. 허미정은 "첫 우승 이후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이번 대회도 컨디션이 관중은 편인데 내일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최종 라운드를 앞둔 각오를 밝혔다.

신지에(21·미래에셋)는 2언더파 140타로 미야자토 아이(일본) 등과 함께 공동 24위, 위성미(20·나이크골프)는 3언더파 139타, 공동 15위로 2라운드를 마쳤다. 상금 및 올해의 선수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크리스티 커(미국)도 위성미 등과 함께 공동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